

# 군사정권 상징 논란 '516로' 명칭 유지

### 두 차례 설문조사에서 '현행 유지' 의견 우세 유지 응답자 주소 혼선·행정적 부담 등 꼽아

군사정권을 상징한다는 논란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요구가 있었던 제주지역 대표 간선도로인 '516로' 명칭이 유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토론회와 주민설명회, 두 차례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516로'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516로 명칭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 1~2월 권역별 도민 공감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369명 중 209명(57%)이 현행 유지를, 160명(43%)이 변경을 바랐다. 또 516로 주소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179명 중 가장 많은 117명(66%)이 현행 유지를 바랐다. 반면 변경을 원하는 응답자는 62명(34%)에 그쳤다.

516로 명칭 유지 응답자들은 주로 주소 사용 혼선과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그 이유로 꼽았다.

또 지역별로 보면 유지 의견 비중은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더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40대부터 60대

이상에서 유지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명칭 변경을 선택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5·16의 역사적 배경이 적절하지 않다', '새 도로명이 더 적합하다', '제주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등을 들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면 해당 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신청해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주소 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1200여 명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516로 도로명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변경을 원하는 주민은 여러 차례 의견 수렴에서 모두 소수에 머물렀

다"며 "주소 사용자의 선택을 존중해 현행 명칭을 유지하고, 관련 민원과 의견은 계속 살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516로는 제주도 아라동 제주대입구에서 서귀포시 토평동 비석거리까지 약 31.6km 구간을 지칭하는 도로명이다. 5·16 군사정변 이후 확장·포장 공사를 거쳐 개통된 이 도로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해 516로로 불려 왔다.

이어 2009년 도로명 고시를 통해 '516로'라는 공식 명칭이 부여됐다. 이를 두고 군사 정권을 상징한다는 지적이 수십 년째 이어지자 제주도는 명칭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남원 파크골프장 36홀로 확장 개장 운영공간·주차장 확충... 전국 대회 유치 기반 마련

서귀포시 남원 파크골프장이 기존 18홀에서 36홀로 증설됐다.

서귀포시는 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국 단위 대회 유치를 위해 사업비 24억 원을 투자, 36홀 규모로 증설된 남원 파크골프장 개장식을 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원 파크골프장은 지난 2022년 18홀 개장 이후 이용객과 파크골프 동호인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2023년부터 36홀 규모 확장사업을 추진해 왔다. 서귀포시는 확장사업과 함께 각종 대회 시 운영·행사공간(1650㎡), 주차장(60대)을 추가로 조성했고 오는 9월에는 신규 화장실 1개소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용객들의 시설 적응과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

시 운영 기간을 거친 뒤 오는 8월 중 공인구장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남원 파크골프장 확장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전국 단위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지역에는 남원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칠십리(18홀), 강창학(18홀), 월라봉(15홀), 시흥공원(9홀) 등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안덕(18홀)과 대정(18홀)은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다. 이와함께 표선면 가시리와 성산읍 남산리에는 각각 18홀, 9홀 규모의 신규 파크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물질 마치고... 10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안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마치고 물로 나오고 있다. 강희만기자

# '아라복합문화센터' 주민 접근성 쟁점

### 제주도의회 제449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 1차 회의 140억 규모 건립 사업... 운영 방식 등 놓고 우려 제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대학교와 협력해 추진 중인 아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주민 접근성과 운영 방식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9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양영수 의원(진보당·아라동읍)은 '(가칭) 제주대 아라복합문화센터 건립·운영을 위

한 제주도-제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140억원이 넘는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라복합문화센터는 제주대 부지를 활용해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라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도는 2028년부터 5년간 지방비 143억50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만㎡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설에는 25m 8레인 수영장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골프아카데미, 평생교육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양 의원은 최근 열린 주민설명회를 언급하며 "당초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정문 버스정류장 인근의 접근성이 좋은 부지였지만 어느 순간 다시 골프장 부지 등 여러 후보지가 제시됐다"며 "학교 안쪽으로 들어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결국 혈세를 투입해 학교 시설만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니냐는 점"이라며 "지역 주민과 제주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협의회 구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한 공공 사우나 시설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류일순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사우나 시설 도입은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접근성과 운영 방식 등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주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 예천노인전문요양원에 '나눔숲' 조성

제주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숲의 다양한 혜택을 소외계층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천노인전문요양원에 '나눔숲' 조성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천노인전문요양원 나눔숲은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사업비 1억1000만 원 전액을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아 추진됐다.

이번에 조성된 나눔숲은 치유공간과 휴게공간으로 구성됐다.

치유공간에는 산딸나무, 왕벚나무, 은목서 등 키 큰 나무와 치자나무, 조팝나무, 남천, 수국 등 키 작은 나무를 식재해 원예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게공간에는 정자 시설을 보완하고 산책로와 벤치를 설치해 시설 이용자와 보호자, 자원봉사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친교의 장으로 조성했다.

위영석기자

# 15~16일 제주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

###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2026년 제주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이 컴퓨터와 모바일,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돕는 기기로 이번 전시회에서는 장애인과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자신에게 맞는 정

보통신보조기기를 직접 체험하고 고를 수 있다. 시각장애 분야에서는 점자정보단말기와 독서확대기, 화면 확대·음성지원 기기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청각·언어장애 분야에서는 무선호출기와 영상·문자 기반 의사소통 기기, 언어 훈련 기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회는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전시장에는 수어통역사가 배치돼 제품 설명과 상담, 보급사업 신청 안내를 도울 예정이다.

오소범기자

##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

###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인파고정판

인파밴드

쿨고리 작업세트

쿨고리+고정판+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